

국힘 올한 ‘한강대첩’ 야망... 개혁신당이 변수

총선 대전표 전쟁 ④ 한강벨트: 4년전 참패 설욕 나선 與

21대 총선 때 14개 지역구 중 용산제외 전패 수도 필승 대항마로 나경원·윤희숙·조정훈 등 ‘작심출격’ 개혁신당 동작을 한승민·마포갑 김기정 눈엣가시

대한민국수도 서울

서울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경제 중심지다. 청와대·국회·대법원 등 행정입법사법 컨트롤타워가 모두 서울에 몰려 있다. 대기업 그룹 본사도 대부분 서울에 소재한다.

서울은 또한 인구 약 938만 명(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기준)이 거주하는 메트로폴리스다.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서울 인구 중 90% 이상은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서울 토박이’는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4.9%에 불과하다. 서울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전국 표심도 요동칠 수 있다.

한강 벨트는 격전지 중의 격전지다. 해당 벨트는 △마포 갑을 △용산 △중·성동 갑을 △광진 갑을 △동작 갑을 등 9개 지역구를 뜻한다. 넓게는 영등포·양천구 등을 포함해 총 8개 자치구의 14개 지역구를 의미한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은 야당 텃밭이

고 강남은 여당 안방이라고 봤을 때 한강 9개 지역구를 차지하는 쪽이 서울 국회의원의 의석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정적으로 서초·강남·송파 등은 국민의힘 정세가 강하고 강북 쪽은 민주당 정세가 강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강 벨트 여론은 역대 선거 때마다 요동쳐 왔다.

이 때문에 여야는 모두 한강 벨트에서의 승리를 총선 승리 기준으로 여기며 사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반응은 한층 민감하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강 벨트 중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이 성적을 앞세워 서울 49석 중 41석을 싹쓸이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해 8석에 그쳤다. 국민의힘으로선 한강 벨트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셈이다.

강남 등 빼고 대부분 마무리된 與 공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식



서울 동작구에 출마하는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2일 동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 도중 액자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스템 공천’을 통해 민주당 후보에 충분한 맞수가 될 수 있는 맞춤형 대항마들을 내보냈으므로 서울에서 압승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오전 기준 국민의힘의 한강 벨트 공천 현황은 △마포갑 경선 종료(조정훈) △마포을 전락공천(함운경) △용산 단수 추천(권영세) △중·성동갑 단수(윤희숙) △중·성동을 경선 종료(이혜훈) △광진갑 단수(김병민) △광진을 단수(오신환) △동작갑 단수(장진영) △동작을 단수(나경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한강 벨트 탈환을 노리지만 몇몇 지역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후보들이 변수다.

羅의 10여년 표밭이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효과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개혁신당이 보수·우파 표밭을 상당수 잠식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소 불리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다.

한강 벨트에 출사표 던진 개혁신당 후보는 동작을의 한승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동대문갑 지구당위원장과 마포갑의 김기정 변호사 등이 있다. 특히 동작을에 시선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1961년생으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1963년생)와 연령이 비슷하다. 출생·성별도 각각 서울·여성으로

같다. 1984년 미스코리아 서울 진 출신인 한 전 위원장은 ‘외모’도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치권 미모 원탑’으로 나 전 원내대표와 유사점이 있다. 개혁신당 측 부인에도 이 대표가 작정하고 나 전 원내대표 표밭을 갈아먹을 ‘자객’을 내보낸 것이냐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나 전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오래 전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쳐왔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이 대표였다.

그는 지난해 8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나경원 의원이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두 번 속으면 안 될 것 같다”며 나 전 원내대표가 중요 직책을 맡

4.10 총선 국민의힘vs민주당 한강벨트 대전표 확정 지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조정훈	이지은
마포 을	함운경	정청래
용산	권영세	강태웅
중·성동 갑	윤희숙	전현희
중·성동 을	이혜훈	박성준
광진 갑	김병민	이정현
광진 을	오신환	고민정
동작 갑	장진영	김병기
동작 을	나경원	류삼영

거나 유리한 공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 전 원내대표는 1월3일 YTN ‘뉴스큐’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사실 너무 안타깝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아마 섬섬함이라도 굉장히 많은 텐데 그걸 (이유로) 신당이라는 걸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시점·명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당선 가능성이 낮은) 노원(국민의힘 공천을) 줄 것 같으니까 나갔나라고 다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신당 과급력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출범로 신당 효과는 상당히 소멸됐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野 이종섭 특검’에... 與·대통령실 “총선용 특검 남발”

“이종섭, 출국금지 사유 아냐...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데 대해 “수사 결과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13일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10일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12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출국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며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서 야당이 수사 방해로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용”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보충책으로 쓰는 수단”

이라며 “해의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법무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될지 검토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상시로 일만 있으면 특검탄핵을 말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끼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던 공수처를 겨냥해서도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이라며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